

*Earn To Give*

*Earn To Give*

별  
어  
서  
남  
주  
자

*Earn To Give*

장응복 | 김영선



EARN TO GIVE

# 벌어서 남 주자

장응복 | 김영선

글 이진규 (한동대학교 14학번)

감수 조나단 박 (한동대학교 99학번)





# 목차

PAGE 04. 서문

- 공부해서, 배워서 남 주는 삶을 가르치는 곳, 한동대학교

PAGE 06. 갈대상자,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살리는 이름

-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인 한동이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

PAGE 10. 믿음의 가정

- 7대째 이어 온 신앙의 유산. 예수 외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PAGE 14, 사랑의 빛으로 다시 맺어진 사랑

- 한국전쟁으로 헤어졌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시 이어진 부부

PAGE 18. 소학교로 간 의사

- 종전과 함께 군의관을 그만두고 학교로 향한 장응복 의사

PAGE 22. 한남동 슈바이처

- 한남동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겪었던 30년의 이야기들

PAGE 28. 이웃집 이방인

- 옆집 주한 일본인과의 20년 우정 속에 꽃 핀 러브 소나타

PAGE 32. 저희 모든 것을 드립니다, 100억

-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목표와 재산 전액을 한동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한 계기

PAGE 38. 벌어서 남 주자

- 쓰려고 벌지 않고 주려고 벌었다, 그래서 더 안 썼다

PAGE 43.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만난 장응복/김영선)

- 장학금 수혜자 세 명 및 세 아들 장성훈 교수, 장성일 교장, 장성민 사장 인터뷰

PAGE 57. 나는 바란다 한동에게

- 100년을 살아 100억을 후원하며 100년을 살게 될 한동인들에게 남긴다.



## 서문

무더위가 찾아오고 녹음이 우거진 어느 여름.

한동대학교의 채플 강단에서 약 50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故 김영길 전 총장님이 힘을 주며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뜨겁게 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내 목표는 한동이 되었다. 그 뒤 한동대학교의 설립과정이 담긴 책, <갈대상자>를 탐독하며 '배워서 남 주는 삶'의 자세를 키웠고, 다음 해 3월 마침내 나는 한동대학교의 교정을 밟을 수 있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배우기보다 남을 돕는 데 쓸 수 있게 나를 갈고 닦던 시간이 지나고, 나는 마지막 학기만을 남겨둔 졸업반 학생이 되었다. 배워서 남에게 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10대 소년은 20대가 되었고, 실질적인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머리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남에게 주는 것보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였다.

먹고 살기 위해 졸업하기 전 여러 현장 경험을 쌓고 싶어 하던 차에, 한동대학교 후원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99학번 조나단 박 선배님과 만나게 되었다. 우연한 기회로 친구의 소개를 통해 선배님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작가로서 선배님을 따라간 곳은 한남동에 거주하시는 장응복/김영선 후원자님의 자택이었다.

수년간 한동대학교에 재학하면서 100억을 기증한 큰 손 후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그 분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다만 엄청 큰 돈을 주셨다 정도만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뜻밖에 그런 무성한 소문의 주인공을 내가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벌어서 남 주자



그분들의 첫 인상은 내 머릿속에 있던 다소 편견 섞인 부자의 전형과는 사뭇 달랐다. 으리으리한 저택 대신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작은 주택, 각종 명품들로 도배되기도는 김영선 권사님이 직접 뜨개질해서 만드신 물품들로 채워져 있는 광경은 내 조부모님의 삶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게 느껴졌다.

그런 장흥복 장로님의 입에서 "벌어서 남 주자."라는 말이 나왔다. 배워서 남 주는 학생들을 위해 벌어서 남 주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했다. 그제서야 후원자 부부의 삶의 모습이 제대로 보였다. 평생을 아끼고, 검소히 살면서 모은 돈을 한동대학교를 위해 아낌없이 기부한 것이다. 장로님과 권사님의 벌어서 남 주기 위해 걸어온 세월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남을 위해서 배우겠다는 마음의 불씨가 다시금 피어올랐다. 배워서도 남 주고, 벌어서도 남 주자. 그게 내가 한동에 다니면서 항상 가슴에 품어야 하는 생각이었지만, 그 말을 후원자 분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 나 자신부터가 그분들이 한동대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부끄러웠다. 대신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시 바르게 잡겠다고 다짐했다.

촬영을 마친 후에 선배님은 다큐멘터리에서 다 풀지 못한 이야기를 소책자로 담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하고 싶다고 자원했다. 오늘 내가 받았던 감동을 내 글로써 전하고 싶었을 뿐 아니라, 잊고 살았던 삶의 포부와 한동의 가치를 찾는 나처럼, 이 글에 담긴 장로님 부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귀감이 되었으면 했다. 그렇게 내가 배운 것을 나누기 위해 펜을 들었다.



## 갈대상자, 한국 기독교의

## 미래를 살리는 이름



“(전략)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출애굽기 2장 11절)

이집트에서 한 히브리인 아이가 태어났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의 수를 줄이기 위해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아이를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 둔 상태였다.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히브리 여인은 갈대로 상자를 엮어 아이를 숨기고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놓아 보낸다. 마침 그곳에서 목욕하던 파라오 딸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히브리 아이임을 알면서도 불쌍히 여겨 자기 아들로 삼는다. 그가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지도자 ‘모세’다.

모세의 갈대상자 이야기는 유명하다.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인 故 김영길 총장님은 그 일화를 따서 한동대학교 후원 기금을 ‘갈대상자’라고 이름지었다. 물에 빠진 모세를 구했듯이, 한동대학교와 한국의 차세대 기독교를 살리는 기금이

벌어서 냅 주자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김 총장님의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의 책 <갈대상자>에는 한동대학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려온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다. 그때부터 한동대학교는 그렇게 하나님의 갈대상자 안에서 보호받아 왔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는 갈대상자 후원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다. 처음 교회에 출석했을 때부터 많은 교우가 한동대학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한동대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과분한 신뢰의 마음을 주었다. 그 태도와 정기적인 후원은 내게 의구심을 품게 했다.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작은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동대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은 학비 및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거나 아예 휴학을 하고 돈을 모아오기도 한다. 그런 학생들에게 후원금을 통해 들어오는 장학금은 새벽의 단비 같은 존재다. 덕분에 숨통이 좀 트인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장학금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무게감을 안다. 모두가 한동의 가치를 세상에 내비치고자 노력한다.

갈대상자 후원자들은 한동대학교와 학생들의 가치와 미래를 보고 후원을 한다. 세상을 바꾸자, 배워서 남 주자. 특히

김 총장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후원한 경우가 많다. 후원자들은 어려운 시대에 기독 청년들을 위해 힘쓰는 김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한동대학교가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혀줄 다음 세대 크리스천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후원을 한다. 자신이 가진 형편에 맞게 적게는 매달 만 원씩, 많게는 평생 모은 100억 원을 후원한다.

나는 한동대학생으로서 얼굴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후원을 해주는 분들의 개인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내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한동에의 꿈을 꾸게 해준 <갈대상자> 책에서 강조하는, '배워서 남 주자'로 대표되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대학을 자처하는 한동대학교, 그곳에서 밤낮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배워서 남 주는 크리스천 리더가 길러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후원하며 그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계셨다. 한동대학교를 믿고 벌어서 남 주고 계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됨을 드디어 깨달았다.

그렇게 한동대학교의 후원자들을 기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나는, 후원자 중에서 개인 자격으로 무려 전 재산 100억을 후원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들이 바로 장응복/김영선 후원자 부부이다. 개인으로서 100억을 모으는

벌어서 남 주자

것도 힘든 일인데 그것을 자신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한 학교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와 한동대학교에 무엇을 기대하고 기부를 했는지를 알고 싶어졌다. 그들이 하나님께 띄워낸 갈대상자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 믿음의 유산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귀한 삶이고 보람된 삶일지 지혜를 가지고 살게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많은 젊은이가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윗사람을 존경하면서 이 땅의 희망이 되고 보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젊은이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로 키워주시옵소서.”

인터뷰가 시작되기 직전, 장응복 장로님은 젊은 세대를 위한 기도를 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장 장로님이 바라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가 전부 담겨 있었다. 윗사람을 존경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먼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 모습을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장응복 장로님은 지금은 닿지 않는 황해도 이북 땅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신자이면서 전도 부인인 할머니부터 시작해 증손자까지 총 6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있다. 장응복 장로님의 할머니는 신학을 전공하지는 않으셨지만 전도 부인으로서 교인을 방문하고 섬기면서 일생을 보내셨다며 믿

음을 지킨 할머니께 존경을 표했다.

당시 초대교회는 신도들이 주일에 물건을 사고팔지 않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지금과 달리 교회가 많지 않아 아무리 가까운 교회라고 해도 20리, 약 8km는 떨어져 있었다. 그런 교회에 가기 위해 장 장로님은 거의 한 시간에 걸쳐 뛰다시피 갔다고 한다. 그 당시의 나이가 열 살 정도였다고 하니, 약 80년 전의 이야기다. 그렇게 90년 넘게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토록 신실한 믿음의 가정. 그 교육방식 또한 '믿음'이었다. 슬하에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타인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로 키워 냈음에도 장 장로님은 그저 본인들이 잘 자라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가르침에 대한 질문에도 "술, 담배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축복된 삶을 살아라."라고 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했다. 신앙생활에 대한 다른 가르침이 없이 교회 출석에 대해 강요도 하지 않았고, 특별히 본이 되는 모범을 보이지 않았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지켰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첫째 아들 장성훈 교수(건국대학교병원)와 둘째 아들 장성일 교장(경민중학교)은 입을 모아 부모님께서 스스로 자식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셋째 아들인 장성민 사장님은 아버지를 따라 새벽예배에 참

석했던 일화를 소개하시며 아버지가 신앙의 모범이 되었음을 이야기했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모두 부모님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믿음의 유산은 대를 거쳐서 손자들까지도 내려갔다.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지만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은 자랑이라면서 소탈하게 웃는 장로님에게서 신앙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는지 엿볼 수 있었다. 장응복 장로님이 기부를 결정했을 때 세 아들은 물론이고 손자들까지 그 재산을 상속받을 생각이 일절 없었다는 것이 놀라웠지만, 장성훈 교수는 당신의 재산을 당신이 쓰시는 것뿐인데 자식들이 뭐라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했다. 당연한 것을 자꾸 귀감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더 이상하다고 덧붙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가족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응복/김영선 후원자 부부가 품은 기부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장 장로님은 남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성실하게 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세를 강조했다. 살아보니, 무엇이든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으며, 남이 보든 안 보든 그저 행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가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은 사실 여러 사람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있어 비로소 가능했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그러면서 기부를 하는 것은 넘치게 받은 것을 청산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그것이 장 장로님이 실천하는 하나님의 내리사랑이었다.



# 사랑의 빛으로 다시 맺어진 사랑



1950년 12월 4일, 후원자 부부는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했다. 그날은 주일이었고 당연히 모두 교회에 갔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얼른 피난 가야 한다는 다급한 말에 교인들은 너나없이 서둘러서 북에서 남으로 이동을 했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당시에 교제하고 계셨지만, 사는 곳이 멀었던 데다 갑작스러운 피난에 경황이 없어 서로의 월남 소식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인천 상륙작전 후 1.4 후퇴 날에 그렇게 장로님은 대구로, 권사님은 제주도로 피난을 갔다.

서로가 피난을 왔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후원자 부부의 남녘 생활이 시작되었다. 장로님은 대구에서 만난 의사의 도움으로 민간 군의관으로 생활했다. 이북에서 보건의료 방역에 관련된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었기에 이를 살려서 동해안의 묵호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한편 권사님은 제주도에 지내다가 살 길을 찾아서 부산으로 갔다. 그때 까지도 서로 생사를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군 생활 중 장로님은 묵호항에 있던 포로들을 거제도도로 보

벌어서 남 주자

널 때 동행했다가 부산에 들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권사님의 소식을 들었다. 친구가 부산에서 권사님을 봤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다. 장로님은 곧바로 권사님이 계신 부산 복음병원으로 향했고 피난을 온 지 몇 년 만에 감동의 재회를 하게 되었다. 양가의 가족들은 아무도 같이 내려오지 못했지만, 장로님과 권사님은 결혼을 약속하며 낯선 땅에서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었다.

핸드폰은 고사하고 전화도 거의 없던 그 시절에 생사를 모른 채 헤어진 남녀가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다. 장로님도 영화 <국제시장> 이야기를 하시며, 그 어려웠던 시절은 정말 영화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심지어 그 당시의 의료활동은 무료였기 때문에, 먹고 잘 수만 있다면 만족했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결심한 것은 아마도 한번 한 이별을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지 않았을까.

일단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부부는 돈이 없었다. 잠도 남의 집에 얹혀 잘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사랑을 이루어 주려는 은인들이 있었다. 당시 장로님의 부대는 주문진에 있었기 때문에 권사님이 주문진까지 오려면 도움이 필요했다. 그때 도와준 사람들이 주문진 감리교회의 한 가정이었다. 이들은 부산에

서 주문진까지 권사님이 옮겨올 수 있게 도와주고 심지어 결혼을 할 수 있게끔 자택을 내주기까지 했다. 예복부터 식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

권사님은 피난부터 결혼까지 무사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분명 이복에 두고 온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난 때 헤어진 가족, 특히 어머님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리는 것 같았다. 장로님도 피난 당시에 따로 내려와서 헤어져 생사도 모르는 부모님을 위해서 무사히 지내시기만을 기도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했던 것보다 부모님들은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지금도 후원자 부부는 그 덕택에 상대적으로 편안한 피난길과 굶어 죽지 않는 생활이 가능했다고 믿고 있다. 기도의 힘이 보이지 않는 기적의 손길이 되어 이끌어 준 것이다. 장로님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언제나 보이지 않는 끈이 자신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꼈다고 한다. 그 모든 것은 다름아닌 그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태어난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작지만 간절한 기도가 모여 꼭 누군가 각본을 쓴 것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 아닐까.

벌어서 남 주자



## 소학교로 간 의사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서 장로님의 삶은 달라졌다. 결혼한 그 해에 한반도를 고난에 빠뜨렸던 전쟁이 마침내 멎었고, 이와 함께 장로님은 군의관으로서의 삶을 청산해야 했다. 전쟁이 끝나 평화가 찾아왔지만 알곳게도 앞으로의 살길이 막막하던 차에, 강릉에서 신세 지고 있던 교회에서의 인연을 통해 작은 학교에서 일하게 되었다. 교육에 뜻을 두었던 그 분이 강릉에 학교를 설립하고 장로님을 교사로 채용한 것이다.

왜 의사를 계속하지 않았을까? 장로님은 이북에서 발급받은 의사면허가 있었지만, 남한에서 그것을 갱신하지 않았다. 안 했다가보다는 하지 못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북에서의 면허로는 남한에서 의사 생활이 불가능했는데, 다만 전시에는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분을 통해서 군의관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후 휴전에 돌입한 후에 몇 년간 이북에서 온 의사들을 위한 국가고시가 있었지만, 1950년대에 특히나 고향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식통이 없

었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교사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학교에는 교사가 세 명뿐이었는데, 장로님은 영어, 수학, 과학 중 전공을 조금이라도 살려 과학을 전담해 가르쳤다. 학교까지 트럭을 얻어 타기도 하고, 버스도 갈아타면서 힘겹게 통근해 가며 교직 생활을 하던 중, 결혼 1년 만에 첫째 아들을 얻었다. 실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었지만, 이는 또 다른 근심도 안겨주었다. 앞으로 세 식구가 살아가야 하는데 장로님의 교사 월급은 겨우 7천 원이었다. 그 당시의 사정을 생각해도 7천 원은 세 식구가 먹고 살며 지내기에는 빠듯한 돈이었다.

그때 때마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에서 안과의사를 하던 성도님을 통해 이북에서 받은 의사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국가고시가 당해를 마지막으로 끝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떠나면 서울에서 이뤄지는 시험.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 가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서울로 길을 떠났다. 아무것도 없는 생활에 정말 큰 용기였다.

서울 체류 중 신세 지기 위해 무작정 찾아갔던 곳은 결혼 당시에 도움을 주었던 사진관을 하는 가정이었다. 그들은 불쑥 방문한 장로님 부부를 반갑게 맞이하고 서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권사님은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로 취직을 했고 장로님은 병원의 조수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간 장로님 부부였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조수로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은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했다. 권사님은 장로님을 내조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봤던 기출 문제 시험지를 구하러 다녔고, 장로님은 그 자료를 가지고 약 4개월간 공부했다. 의사 국가고시는 열다섯 과목을 시험 보는데 영어가 많이 사용되었던 까닭에 밤낮없이 공부해야 했다. 이북에서 영어를 써본 적이 없었다는 장로님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다며 소탈하게 웃었다.

그 어려운 시험을 반년도 채 준비하지 않았지만 단번에 합격해서 정식 의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여유로운 장로님의 모습에서 반드시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분투한 젊은 시절의 모습이 잠깐 보이는 듯 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장로님은 남한에서 진짜 의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 한남동 슈바이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 중심부에 위치한 한남동은 도심 속에서도 유유자적한 여유가 있는 곳이다. 혼한 골목길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단정한 모습이다. 그 여유 때문인지 부유한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한남동도, 그 옛날 60년대에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 병원이 바로 장 장로님의 '장의원'이다.

병원이 처음부터 한남동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을지로에 개원해 다음은 약수로 옮겼고, 그 후로 마지막으로 정착해 30년 동안 있었던 곳이 한남동이었다. 의사 국가고시는 합격했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을 차리기가 막막했던 장로님은 이북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 홍우준(후에 3선 국회의원인 뒤)의 도움을 받았다. 한국전쟁 발발 전에 이미 남한으로 내려왔던 친구는 이전에 이북에서 목수 일을 배웠었고, 그 경험을 살려 장의원의 진찰대와 약장, 책상 등을 전부 만들어 줬다. 그것이 을지로 장의원의 시작이었다.

당시 한남동은 서울에서도 변두리 지역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던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었다. 그곳에 다니던 교회 장로

님의 권유로 장의원을 옮겨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병원이라고 해도 그저 세탁소 옆 한 칸 방이었고, 몹시 가난한 시절이었다고 했다. 권사님은 셋째 아들을 낳기 전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면서 맞벌이 가정을 이끌어 나갔다. 그 후에 장의원의 간호사로서 장로님과 30년의 병원 생활을 같이 했다.

그 시절에는 전국적으로 보아도 의사의 수가 많지 않았다. 장로님이 합격한 의사고시가 제 8회, 면허 번호가 3천번 대였던 것과, 현재의 12만 명이 넘는 의사 수를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12만 명에 비해 3천명은 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으로 작은 수이다. 그만큼 장로님은 정말 대한민국 초창기의 의사였으며, 당시 한남동에서는 첫 번째 의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은 물론이고 쉬는 시간조차 없었다. 24시간 365일 동안 30년을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한 가정의 부모로 살았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밤낮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일에도 쉴 수가 없었다. 예배만 드리고 병원으로 돌아와 다시 진료를 보는 삶의 반복이었다. 아들 셋 키우면서 맞벌이를 했던 부부는 해준 것 없었는데 아들들이 스스로 잘 자라주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시절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시절이었다.

병원에 딱히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을 정해 놓지는 않았다.

계속 병원에 머무르면서 환자가 오면 진료 시간이고 환자가 오지 않으면 식사 및 휴식 시간이었다. 그런 장로님을 챙겨주었던 것이 둘도 없는 친구 홍우준이었다. 그는 식사 시간마다 와서는 장로님을 잠깐 데리고 나가서 식사를 챙겨주고 돌려보냈다. 한창 가족들과 어딘가를 다니며 추억을 쌓아야 할 나이에 병원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안타까웠던 친구는 장로님 가족과 함께 온양온천으로 하루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것이 장로님 부부의 의사 생활 중 몇 안 되는 휴가였다.

첫째 아들 장성훈 교수는 장로님이 의사 생활 중 병원을 떠난 몇 안 되는 시간 중 하루가 자신의 군의관 임관식 날이었다고 전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줄 알고 의예과 2학년의 수학여행도 포기한 적이 있는 장 교수는 장로님의 검소하고 성실한 삶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았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편한 길을 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모습에서 장로님이 겹쳐 보였다.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은 동네 주민들에겐 구원의 장소였다. 먹고 살기 힘들고, 아파도 치료받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작은 병원이라도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늦은 밤에도 환자를 업고 찾아오기 일쑤였다. 응급실도 없는 작은 병원이었지만, 환자가 오면 언제 어떤 상황이더라도 진

료를 해주기 위해 부부는 2층 진료실에서 침식을 하며 지냈다. 빨리 나와서 가족을 살려 달라며 단혀 있는 병원의 유리창에 돌을 던져서까지 장로님과 권사님을 불러낸 환자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이들은 대부분 치료비도 없이 진료를 봐달라고 했지만, 장로님은 어려운 시절인 만큼 개의치 않았던 모양이다. 오히려 자정쯤 늦게 찾아왔던 환자를 치료하고 1층으로 내려가 애들이 잘 있나 살펴본 덕분에 연탄가스 중독에 걸려 빈사 상태에 빠졌던 것을 구할 수 있었던 일화를 들며 늦게 찾아왔던 환자의 덕을 봤다고 말했다.

의사라고 해서 질병이나 부상을 전부 다 알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환자들은 장의원에 가면 모든 아픔이 낫기를 기대하면서 찾아왔다. 한남동에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적어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곳으로는 장의원이 유일했기 때문에 장로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과, 소아과 할 것 없이 공부하고 진료를 했다. 심지어 산부인과처럼 아기까지 받아봤다며, 환자가 왔다 가면 새로운 것에 대해 계속 배워서 치료하는 삶을 살았다. 의사라고 해서 자기 전공 이외의 것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의사가 귀했던 그 시절의 장로님은 혼자서 한남동의 모든 병을 책임진 것이다.

그렇게 남들을 돌보는 삶은 때로 감사한 인연을 안기기도

한다. 장로님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어를 능숙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살려 일본 환자들을 봐준 적이 있었다. 그 중 한 명은 장로님께 고마움을 느껴 3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선물과 카드를 보내온다고 한다. 그런 것이야말로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큰 보람이 아닐까.

그의 슈바이처로서의 삶은 1958년에서 1991년까지, 33년 동안 계속되었다. 65세에는 은퇴하겠다는 마음이었지만 힘이 더 달아서 그보다 조금 더 지나서까지 환자를 돌보았다. 그러다가 1992년도에 목 디스크를 앓게 되고 오른쪽 손과 팔에 큰 통증을 느끼게 되어 더 이상의 의사생활은 무리일 것 같아 병원을 그만두었다. 만약 별다른 큰 병 없이 계속 진료할 힘이 있었다면, 아직도 의사 가운을 입은 장로님을 볼 수 있었으리라. 그토록 장로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이었다.



## 이웃집 이방인

동네에 병원이 하나 있다는 것은 곧 그 병원 의사가 동네 주민 전체의 주치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응복 장로님도 한남동의 주치의로서 왕진을 많이 다니셨다고 한다. 한남동 이곳저곳을 그야말로 누비고 다니셨는데, 그 대상에는 한남동 일본인 학교도 포함되었다. 33명 남짓한 학생이 있는 일본인 학교 학생들은 외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 그들에게 일본어가 가능한 장응복 장로님은 교의이자 최고의 주치의였다.

외지에서 편히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무척 큰 이점이다. 나도 외국에서 잠깐 타지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혹여 건강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부분 마음을 놓고 생활할 수 있었다. 나처럼 60년대 서울에 있던 일본인들도 한남동 주치의 덕분에 한결 마음 편한 타지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장응복 장로님은 일본인 대사관부터 평범한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본인 환자가 전부 자신의 환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만큼 장로님은 이방인들에

게도 따뜻한 슈바이처였다.

장응복 장로님과 김영선 권사님은 매해 크리스마스마다 일본인들로부터 카드를 받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곧잘 카드를 보내왔지만, 세월의 위세에 점차 뜸해졌다. 그럼에도 딱 한 명에게서만은 아직까지도 매년 온다고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장응복 장로님의 귀중한 인연 무라에마 료 이시이다. 장로님도 의사를 그만두고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음에도 계속 편지를 보내는 그를 실제로 만났던 2007년을 생생히 기억한다.

2007년, 온누리 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불모지였던 일본 땅을 향해 구원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러브 소나타'라는 이름의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그 이후 10년 넘게 현재까지도 매년 열리는 이 행사에 장로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당시 장응복 장로님은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담임 목사였던 故 하용조 목사의 뜻에 동참해 러브 소나타에 참여하셨다. 그때 하용조 목사는 장로님께 일본 사람 중에 아는 분이 있으면 초대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장로님은 얼굴은 모르지만 매년 카드를 보내오는 무라에마 씨를 떠올리셨다. 그리하여 장로님은 편지에 적힌 주소로 '당신을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를 동봉하여 편지를 부쳤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장로

님은 무라에마 씨로부터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장로님이 일본에 오셔서 연락하면 모시러 가겠다고 적극적으로 화답했고, 도쿄로 향한 장로님은 마침내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장응복 장로님은 의사 시절 은행 지점장으로 있었던 일본인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은행 지점장이었다고 소개하는 무라에마 씨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는 유일하게 매년 편지를 보냈고, 결국 장로님과 일본에서 만날 수 있었다. 환자로 장로님을 만나 무사히 치료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현한 무라에마 씨는, 장로님 덕분에 러브 소나타 예배에도 참석하며 아직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인연이 되었다.

장응복 장로님은 무료로 치료해준 것도 아닌데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를 신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장로님이 바다 건너 일본에서 열리는 '러브 소나타'에 매년 참석하시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어려웠던 수십 년 전 낯선 땅의 사람에게 건강 그 이상의 마음을 주셨을 장응복 장로님이 눈앞에 그려진다. 그렇기에 무라에마 씨도 타지에서 만난 그 누구보다 장로님께 감사를 느끼고 매년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와 귀중한 인연으로 발전하는 계기는 그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진짜 마음을 열고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 장로님의 그 조금의 마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 전해지고 귀중한 인연으로 이어진 셈이다.

장응복 장로님은 '러브 소나타'를 통해 일본이 점점 변화되고 복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경험하신다고 한다. 나이가 많아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며, 기회가 닿을 때까지 봉사자로 섬길 것이라는 장로님의 소중한 마음. 꼭 그 같은 마음이 60년대와 지금, 모든 이웃 집 이방인들의 마음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귀하게 심어져 있으리라 믿는다.





# 저희 모든것을 드립니다

## 100억



100억. 요즘 시대에 태어나자마자 1년에 1억씩 모은다고 해도 평생을 바쳐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모으기도 그토록 어려운 액수인데, 그렇게 힘들여 평생 모은 돈을 기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만 해도 1학년 때 학교를 위해서 매달 천 원씩 후원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자동 이체마저 해지할까 고민했다. 나는 그 적은 돈을, 심지어 사랑하는 모교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누군가는 아무 연고도 없는 학교를 위해서 100억을 기부했다.

장응복 장로님께서 고향인 이북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둘째 아들인 장성일 선생님께 전해 들었다. 장로님은 평생을 아끼며 살아 100억을 모았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아직은 가지 못하고 멀리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북녘 땅, 확실한 뜻과 충분한 자금이 있음에도 그 곳에 교회를 세우기에 안타깝게도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았다. 이후 장로님은 다른

벌어서 남 주자

무엇이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일까 고민을 하셨다. 그 고민의 결과로 올바른 뜻을 품은 다음 세대가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마음 먹으셨다.

장응복 장로님은 처음부터 100억을 한동대학교에 기부할 생각은 아니었다. 평생의 목표가 돈 좀 벌면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장로님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자신의 묘비에 "버지니아 대학의 설립자" 외에 어떤 말도 적지 말라고 했던 일화를 들었다. 자신도 그와 같이 자신을 높이는 삶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공헌한 삶을 살며 보람을 느끼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장로님의 꿈을 이어받아 언젠가는 통일이 된 이북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셨다.

그렇게 그저 100억이 생길 때까지 오랜 세월을 바쳐서 절약하며 살았고, 어느 순간 이루어졌다고 했다. 금전적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다음 단계로 재단을 만드는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고민 끝에 직접 재단을 설립하는 것보다 올바른 가치 위에 세워진 학교를 후원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온누리 교회에서 하용조 목사와 김영길 전 한동대학교 총장님을 만나게 되고 한동대학교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사실 한동대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일전에 인

생의 도움을 많이 주신 전영창 선생이 설립한 거창고등학교에 기부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교장이자 전영창 선생의 아들인 전성은 교장이 학교에 필요한 만큼의 돈은 있다고 거절했다. 그래도 전영창 선생께 지은 마음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1억을 따로 증여하고, 다음 후보인 한동대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용조 목사를 따라서 한동대학교에 갔을 때, 장로님은 곧바로 다른 대학교와의 차이를 느꼈다. 이전에 다른 대학에 기부할까 싶어서 찾아갔지만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다. 놀랍게도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웃으면서 인사를 한 것이었다! 장로님은 그 점이 남다르다고 느꼈다. 그 대목에서 나는 당연함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꼈다. 내가 6년간 경험한 한동의 학생들은 나보다 나이가 웬만큼 있어 보이면 그분이 손님이든 한동의 교수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인사를 한다.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학교에 갔을 때에도 학생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크게 감동하며 그런 학교에 다니는 나를 뿌듯하게 여겼다. 한동의 학생들에게는 일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 그 가치가 장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에 한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뿐 아니라 장로님은 김영길 총장님의 '배워서 남 주자'라

벌어서 남 주자

는 말에도 큰 감명을 받았다. 평생 살면서 배워서 남 주라는 말만 들었지, 배워서 남 주라는 가르침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 말을 버릇처럼 하는 총장님이 있는 학교 학생들은 다르기를 기대했다. 그 기대로 선뜻 큰돈을 후원한 것이다. 어차피 많이 벌어야 죽으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며, 배워서 남 주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번 돈을 남에게 주었다.

장로님은 이 사회에 배려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벌어서 자기 자식한테만 물려주는 것보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남에게 주는 것이 멋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의 학생들이 나라의 희망이 되어 주길 바랐다.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는 사람들이 되길,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선한 가치가 올바르게 서길 바랐다.

평생 번 돈을 아무 연관이 없는 남을 위해 준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반대하지 않았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평생을 그렇게 교육받았고, 당연한 도리일 뿐이라고 했다. 장로님도 부족함 없이 키운 후에 남은 돈을 기부하는 것에 자식들이 왜 반대하겠냐고 했다. 그리고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하용조 목사 와 함께 장로님의 아들들 전원이 아버지의 기부에 대한 어떤 불만도 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 말을 듣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인 아버지 밑에서 자식들이 그 길을 올

바르게 걸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나눠주면서도 장로님은 반기만 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다. 아직도 줄 것이 한참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장로님의 모습이 내게 정말 멋진 어르신으로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다고 하자, 장로님은 손을 흔들며 보이며 욕심 부릴 것 다 하고 남은 것을 나눠주었는데 어찌 칭찬할 만한 일이냐고 말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은 장로님이 한동대학교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이어져 왔다.

한동대학교에 100억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을 때, 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 그때 인터뷰를 하고 기사화한다면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했던 일화를 둘째 아들인 장성일 교장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처음 이 책자 작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당신의 일이 알려지고 주목받는 것을 꺼리며 거절했던 일이 문득 겹쳤다. 한동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이 후원자의 삶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명목이었기에 겨우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다시 이해되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태복음 6장 4절)” 장로님은 당신이 한 모든 것을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다.

벌어서 남 주자





장로님 부부로부터 점심에 식사를 같이 하자는 연락이 왔다. 메뉴는 평양냉면이었다. 가끔 고향 생각이 날 때 즐겨 찾는 메뉴라는데 오늘이 그 날인 듯했다. 식당에서 냉면이 나오기 전에 만두가 나왔는데, 권사님은 만둣국을 시키더니 많이 먹지 못한다며 만두를 양보했다. 그리고 권사님은 만둣국이 나오자 미리 준비해온 냄비를 꺼내 먹을 만큼의 만두를 덜고 나머지를 냄비에 담았다. 자리에 함께 한 둘째 아들, 장성일 교장은 익숙한 듯 권사님을 도왔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내 생각 속의 100억을 기증한 가족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의사라는 직업은 소위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 때문에 돈을 모으기 훨씬 쉬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하지만 장 장로님과 김 권사님은 오히려 조금 버는 사람들보다도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돈을 모았다. 집에 있는 물건 중에 10년 된 물건은 거의 새것이라 하며 웃는 장로님의 모습과 권사님이 직접 뜨개질 떠서 집 안 구석구석을 수놓은 물건들을 통해 생활에 배어 있는 검소함을 느낄 수 있었다.

돈을 모으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여쭙보았을 때, 장로님은 돈은 억지로 모은다고 모이지 않으며, 절약 없이는 이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집에 차도 없고, 버스를 타거나 가끔 아들들의 차를 타고 생활하기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저 버스면 만족하고 살았다는 장로님의 모습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으로 보였다.

지내고 있는 집은 예전 병원을 시작하기 위해 한남동에 왔을 때 지은 집이었다. 지금은 부동산이 세 들어서 있는 건물이 병원이었고, 그 뒤 자그마한 사택이 50년간 후원자 부부가 지낸 집이다. 집이 오래돼서 곰팡이도 피고 벽지도 뜯어지고 고친 게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집은 낡아 보이지 않았다.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긴 했지만 아직은 새것 같은 느낌, 그것이 후원자 부부가 절약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아끼면서 살았어도 부족함은 없었다. 권사님은 그렇게 말했다.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 흔한 반지 하나도 권사님 손에는 없었다. 살면서 유일하게 맞췄던 반지가 결혼 반지였는데, 그 반지마저 팔아 당시 있던 빚보증을 갚았다고 한다. 세 아들을 키우기 위해 맞벌이를 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장로님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

하시면서도 살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권사님에게 그 시절은 고생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살 수 있는 밑거름이었다. 장로님이 병원을 차리고 돈을 곤잘 벌 때에도 권사님은 한 번 돈 달라 한 적이 없다. 그저 필요가 없었다면서 맑게 웃는 모습에서 진심이 묻어나왔다. 큰돈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좋은 브랜드의 가방을 큰마음 먹고 샀을 때 며칠을 행복해 하던 내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권사님도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텐데 검소한 삶을 위해 많이 참고 포기하고 살았던 게 아닐까.

장로님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능력보다도 외부의 도움이 컸다고 했다. 병원을 세우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여기저기서 끌어주는 것이 느껴졌다고 한다. 특히 은행에 저축하는 대신 증권을 샀었는데 운이 좋게도 그 덕분에 돈이 많이 늘어났다. 물론 망한 주식도 있지만, 다른 주식에서 돈이 채워졌고 장로님에게 증권이란 돈벌이 수단 보다도 그저 저축하는 다른 방법이었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대학교에 기부한 100억 중 40억을 주식으로 기부하며 배당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 주라고 한 것이리라. 그것이 장로님이 재산을 아끼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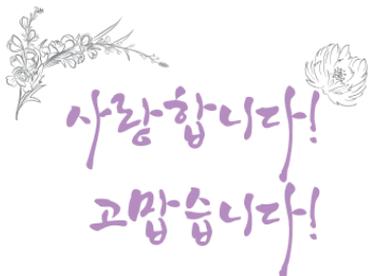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벌었기 때문에 그 외의 나

머지 돈을 기부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장로님. 장로님은 스스로가 욕심이 많다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먹고살 만하고 나서 그 나머지를 기부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돈이 무려 100억이다. 내가 만나 뵈고 경험한 장로님과 권사님은 욕심 때문에 돈을 모으고 기부한 것 같지 않았다. 당신들의 삶에 집중하고 절약하며 살다 보니 큰돈이 모였고 그 돈을 기부했을 뿐인데 그 액수가 컸을 뿐인 것 같았다.

가만 생각해 보았다. 과연 나는 살다 보니 100억이 모였다고 해서 기부할 수 있을까? 아니 1억이라도 내게 남는 돈이 생겼을 때 기부할 수 있을까? 사실 아직 잘 모르겠다. 다만, 후원자 부부처럼 100억이 모인다면 기부해야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선뜻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쓰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그것이 내가 배워서 남 주겠다, 벌어서 남 주겠다는 마음을 갖게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벌어서 남 주자



한동대학교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다니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중 상당수는 해외 선교에 뜻을 품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학생들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오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 왔음을 많이 느낀다. 많은 학생들이 특히 생활비 부분에서 많은 고충을 겪는다. 넉넉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들에게 장학금은 정말 큰 힘이 된다. 장로님과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채움 받았던 그들이 전하는 감사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하고자 한다.

####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18학번 박신실

장응복 장로님은 기부한 돈 외에 매년 장학금으로 1억원을 기부하셔서 해외 선교사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쓰였다고 한다.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배움보다 다른 것들에 신경을 더 많이 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18학번 박신실 학우이다. 박신실 학우는 장학금 덕분에

딱 필요한 시기에 돈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며, 그 덕을 많이 보아서 벌어서 남 주는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받은 만큼 능력이 닿는 데까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많은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그녀가 장로님께 감사 편지를 썼다.

안녕하세요. 저는 탄자니아 MK 18학번 박신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9살 때 탄자니아로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선교지에서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학교선배들을 통해 한동대학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의 “배워서 남 주자.”라는 모토에 이끌려 한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선교지에서 자라며 나누는 삶에 대해 많이 배우고 느꼈기에,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18년 드디어 한동대학교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생명과학을 배우며 고등학교 때보다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이해하고, 또다시 배웠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삶을 이어가다 보니 제가 처음 한동대학교에 올 때 가졌던 “나눔”이라는 마음은 많이 약해지고 학점과 아르바이트 등, 저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디언즈 CCF 라는 장학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지금껏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장학금을 처음 받을 때도 “나눔”이라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

벌어서 남 주자

다. 하지만 후원자이신 장응복 장로님을 처음 뵙게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제가 한동대학교에 온 이유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서는 거동도 불편하신 장응복 장로님께서 장학생들과의 하루, 그것도 종일이 아닌 점심 한 끼를 위해서 멀고 먼 포항, 한동대학교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나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장학금을 받았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늘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장응복 장로님을 뵙고는 감사함이 다가 아닌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날 장로님과는 대화를 나눠보지도 못했고, 어쩌면 저에 대해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으로 인해서 제가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게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저 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닌, 배운 것을 나누며 가진 것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한동가디언즈의 많은 후원자분들을 비롯해 장응복 장로님을 뵙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또한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그 배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실 올림

## 한동대학교 법학부 17학번 강한얼

중동에서 목회하시던 아버지를 따라 해외에서 10년 이상을 살고 한동에 입학하여 한국에 왔을 때 자기소개서를 본 강신의 부총장님이 장응복 장로님의 후원을 받을 수 있게 추천을 해줬다고 했다. 덕분에 생활비에 부담을 덜었고 부모님의 사역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에 뿌듯했다는 강한얼 학우였다. 강한얼 학우는 자신에게 후원해 주는 장응복 장로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다. 짧게 두, 세 번 정도 만났던 장로님은 올바르게 배워서 최고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그 말에서 한동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희망이 느껴졌다고 한다. 그 희망에 보답하기 위해 별어서 남 주는 장로님의 삶을 통해 제대로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는 그는, 감사한 마음을 아무리 표현해도 부족하다며 장로님이 바라는 소망이 적어도 한 명의 학생 이상에게 와 닿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한얼입니다. 재작년까지 장응복 장로님을 거의 매 학기 뵈며 가지게 된 감사한 마음을 짧고 부족한 글로나마 표현해보려 합니다. 매년 한동이 있는 포항까지 내려오시고, 한동 학생들과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께서 학생들에게 사랑의 조언을 나누실 때마다 저와 한동

별어서 남 주자

학생들을 지극히 아끼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마음으로 느낍니다. 무엇보다 장로님 가슴 깊은 곳에서 전해지는 한동 학생들을 향한 기대와 희망이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힘입어 한동에서 대학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서는 제가 무엇을 하든, 항상 최고,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무겁게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학업과 한동 생활에 몰두하며 항상 최고가 되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돌아보며 장로님이 살아오신 삶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저는 장응복 장로님과 김영선 권사님께서 저에게 소중한 본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배워서 주는 것, 별어서 주는 것 모두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장로님과 권사님의 삶에서 묻어나는 희생의 습관들이 결국 100억이라는 돈으로 모여 한동대학교에 의미 있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세대에 필요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필요 이상으로 권세를 휘두르고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욕심을 포기하고, 다만 불편을 기쁘게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과 소망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응복 장로님과 김영선 권사님께서 삶 전체에 걸쳐 별어서 남 주신 것처럼, 저도 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습관을 기쁘게 다지고, 기회가 된다면 가진 것을 통 크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 습관을 다질 때, 제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서 내

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연결하며 성령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사귄다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응복 장로님이 해 주신 조언과 같이, 제가 현재 있는 위치에 마냥 안주하여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더 나은 삶을 바라게 하는 포부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한동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얼 올림

###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16학번 박하영

선교사 자녀로 살면서 힘든 것은 없었고 오히려 부모님이 자랑스럽다고 박하영 학우는 말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녀 스스로와 그 삶에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었다. 그때 장응복 장로님이 “여러분은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 목회자 부모님들은 큰 뜻을 위해 희생하시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배울 수 있게 믿음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 말이 박하영 학우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다. 받은 게 많은 만큼 나누는 삶을 살고 싶고, 특히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힘쓰고 싶다면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해

벌어서 남 주자

준 장응복 장로님, 김영선 권사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장응복 장로님 김영선 권사님.

저는 한동대학교에서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로님, 권사님께 장학금을 받아온 박하영이에요. 장로님과 권사님을 총 3번 정도 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처음 만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저의 가디언즈 분의 성함이 적힌 이름표를 받고 ‘김영선 권사님 어떤 분이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디언즈 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강신익 교수님이 저에게 저의 가디언즈 분은 장응복 장로님의 부인이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우리 학교에 100억을 기부해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전에도 100억 기부하신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많고 많은 장학생 중에 제가 장로님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에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차에서 내리시고 걸어오시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를 위해 포항까지 오신 그 열정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인 곳에서 장로님께서 저희 장학생들에게 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해 주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돈 없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믿음을 본받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루에 24시간이 아닌 25시간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사세요”

부모님이 멕시코에서 18년 동안 자비량 선교를 하시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항상 눌러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커서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주변 목사님 자녀나 선교사님 자녀들을 볼 때 풍족하게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선교하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그런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동에 오니 그러한 MK 친구들, 목회자 자녀들을 보며 그런 자격지심이 저도 모르게 저의 안에 자리 잡혀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때 와서 해주셨던 그 말들이 저를 눈물 나게 했어요. 돈보다 더 귀한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저에게 확고하게 심겨 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몰려와 흘리는 감사의 눈물 같은 것이었어요.

저의 삶은 '채우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셨어요. 가족이 다 멕시코에 있고 저만 한국에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더욱 더 경험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나의 이 땅에서의 부모님이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채우시는 것을 참 자주 경험하게 하셨어요. 장로님과 권사님을 만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채우심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한 뒤로는, 왜 나도 받은 이 은혜를 주위로,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들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를 한동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한동에서

벌어서 남 주자

의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한동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 사람들 정말 모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순간들과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멕시코에서 혹은 중남미에서 사역하고 싶은 저의 꿈에 한 걸음, 아니 열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준 귀한 학교가 한 동이에요. 장응복 장로님이 저에게 베푼 도움의 손길은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저의 비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선교사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선교사 자녀로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정말 더 온전하게 위로하고 공감하게 해 주신 것 자체가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로서 살아가고 싶어요.

장로님,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너무 감사드려요. 저에게 너무 귀한 가르침을 주신 인생 멘토 같은 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박하영 올림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할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부모님이라고 대답한다. 많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내 인생 전반을 책임지고 키워 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끝이 없으리란 생각이 든다. 후원자 부부에게 가장 고마움과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도 그 자식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부모님에 대한 그

들의 생각을 듣고자 인터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담았다.

### 첫째 아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장성훈 교수

부모님이 의사인 집은 대체로 자식도 의사인 경우가 많다. 장로님 부부의 첫째 아들도 의사라고 들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의사가 되겠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장성훈 교수를 뵙고 들은 이야기는 달랐다.

아버지가 의사로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교수님은 의대가 아닌 공대로 진학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장로님은 첫째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고, 환자를 돌보고 도움을 주는 일에 대한 보람을 알려주며 즐기치게 설득했다. 결국 교수님은 아버지처럼 개업하지는 못하겠다며 페이닥터로 타협하고 의대로 진학했다.

같은 의사로서 바라본 아버지는 성실 그 자체였다. 집과 병원이 분리되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것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새벽에 등교 전에 병원 바닥을 대걸레질 하며 아버지의 병원 일을 도왔다고 한다. 그런 모습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의 모습으로 느껴졌다.

그런 헌신을 받고 몸소 체험했기 때문인지 아버지가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 서약서를 작성하면서도 당신의 재산을 당신이 쓰는데 왜 자신이 서약서까지 작성하는지 의문이었고, 전혀 반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용돈을 풍족하게 받지도 않았고 독립하면 내 쓸 돈은 벌어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했기 때

벌어서 낭 주자

문에 유산 포기각서에도 흔쾌히 서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교수님에게 장로님의 돈은 ‘내 돈’이 아니었다.

교수님은 한동 학생들이 장로님처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믿음의 생활을 본받고 물질에 여유가 있다면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장로님이 한동 학생들에게 바라는 마음 역시 같으리라 생각한다.

### 둘째 아들 전 경민중학교 교장 장성일 선생

장 장로님과 권사님을 인터뷰하러 갔을 때, 그 집에는 한 분이 더 계셨다. 바로 둘째 아들인 장성일 선생님이다. 장성일 선생은 매일 장로님을 모시고 남산을 두 시간씩 산책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다. 몸이 노쇠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근처에 살면서 매일같이 방문하는 모습이 딱 효자의 인물상이었다.

교장으로 있었던 경민중학교의 교훈이 ‘효’였다고 한다. 인사말도 “효도합시다.”였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더 노쇠해지기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곁에서 모시고 있다고 했다.

장성일 선생이 아들로서 바라본 아버지는 큰 어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삼 형제 중 둘째로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말썽을 부렸음에도 다 이해해주고 모자람 없이 길러주셨다고 한다. 권사님은 둘째 장성일 선생을 장난꾸러기였다고 묘사했는데, 그것을 선생은 속을 많이 썩었던 과거를 이해해주신 것 같다며 감사하는 한편 미안

해하기도 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도 같아 보였다.

그렇기 때문인지 아버지가 기부하겠다고 하셨을 때도 반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받은 것이 많았기에 오히려 좋은 일에 쓰게 된 것이 마음이 편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기부된 돈이 올바르게 쓰이길 원했다. 한동 학생들이 정말로 배워서 남 주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나라의 희망이 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셋째 아들 샌디에고 소재 한인 기업체 장성민 사장

장로님과 권사님께 찾아뵈었을 때 항상 보여주시는 사진이 있었다. 셋째 아들인 장성민 사장님이 계셨던 하와이에서 찍은 가족여행 사진이었다. 환한 미소를 띤 가족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가족 여행 당시 누구보다 환하게 맞이해 준 셋째 아들 부부를 칭찬하시곤 했다. 그 사진 속 주인공을 직접 만나고 싶었지만 멀리 미국 샌디에고에 계셨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인터뷰할 수 있었다.

사장님은 24살 때부터 해외에서 거주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다. 젊은 시절부터 떨어져 살아서 부모님께 무엇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며 자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지낸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할 때면 한국전쟁 당시의 이야기와 아무 것도 가진 것

### 벌어서 남 주자

이 없던 시절부터 의사 생활을 한 이야기까지 상세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맨손으로 척박한 땅에서 살아내셨다고 얘기를 할 때엔 장로님과 권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나에게도 느껴졌다.

장성민 사장님은 부모님을 ‘근검절약’과 ‘성실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셨다. 권사님은 사장님이 어렸을 적부터 노트나 종이에 여백이 보이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고, 심지어 편지를 보낼 때는 편지지 앞뒤를 모두 채우셨다고 했다. 처음 하와이에 가서 부모님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도 항상 사장님께서 보낸 편지 뒷장에 답장을 써서 보내셨다고 하셨다.

사장님은 장로님을 늘 성실하게 일하시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생활하셨다면 기계 같은 분이라고 묘사하셨다. 의사 생활 때에는 쉬는 날 없이 일하시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새벽 5시에 매일 같이 새벽예배에 참석하셨다고 했다. 심지어 사장님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혹은 장로님과 권사님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시차에 관계없이 현지 시각으로 새벽 5시만 되면 무조건 예배에 같이 참여해야 했을 정도로 계획을 지키셨다. 사장님은 장로님의 결심을 하시면 꼭 이뤄내시는 점에 존경심을 표했다.

그런 부모님이 100억을 기부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장님은 ‘그렇구나’ 하는 마음만 들었을 뿐 특별한 다른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자가용도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하시던 부모님께서서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으셨기에 그저 열심히 절약하시면서

사셨고 대단하시다는 마음만 들었다고 하셨다. 다만 이런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권사님의 마음에 백번 동의한다면서, 언젠가 사장님도 부모님을 본받아 진정한 나눔을 할 수 있길 바라셨다.



벌어서 남 주자



나는 바란다  
한동에게



한동대학교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나눔이다. 故 김영길 총장님이 늘 힘주어 외치던 "배워서 남 주자."라는 말에 반해서 학교에 온 학생들이 많다. 그런 학생들이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졸업하고서도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장응복 장로님과 김영선 권사님이 한동대학교에 바라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저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돌아갈 장학금이요 있으면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장로님의 말씀에서 한동대학교에 거는 특별한 기대를 느낄 수 있다. 늘 하는 기도 제목 중의 하나가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 기둥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 기도의 대상이 비단 한동 학생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들만큼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요즘 시대 젊은이들은 자신밖에 모르고 심지어 부모, 형제도 눈 밖에 둔 채로 높게 올라가서 어떻게든 자기만 살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한동 학생들은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도의 끈도 놓치지 않았으면 했다.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한동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남들이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해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에 앞서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장로님은 한동 학생들이 한동의 중심인 비전 광장에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한다. 그런 학생들이라면 평생을 번 돈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 돈으로 배운 학생들이 배운 것을 남에게 주는 멋진 일을 하길 진심으로 바랐다.



벌어서 남 주자

장로님은 한동대학교가 좋은 스승을 두었다고 말했다. 국민학교 시절 아직 일제강점기일 때,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 스가하라라는 일본인 선생님이 조선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조선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줬다고 한다. 것처럼 김영길 총장님의 배워서 남 주냐는 가르침, 한동인들이라면 그 가르침을 정체성으로 삼고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장로님은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운 선한 영향력을 한동이 내비칠 수 있기를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줘라. 그리고, 벌어서도 남 줘라.”

받기만 하는 삶을 살아서 아직도 줘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다는 장로님의 저 짧은 한마디와 그 인생이 내게, 또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그것이 후원자 부부가 띄워낸 갈대상자에 담긴 메시지인 것 같다. 100년을 살아오면서 모은 100억을 기부한 장로님의 삶을 잠깐 엿본 시간이 앞으로 100년을 살아야 하는 나를 비롯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장로님 부부를 만났기에 나는 한동에 오려고 결정했던 그때의 초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배워서, 그리고 벌어서 남 주자.



# 후원신청서

# 한동대학교 7000 갈대상자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NAVER

7000 갈대상자 ▾

한동대학교  
HANDONG GLOBAL UNIVERSITY

# 한동대학교 7000 갈대상자

NAVER

7000 갈대상자 -

후원금액 1년 100만원

사용목적 갈대상자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지정기부금) 기독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 법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법인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지정기부금

참여방법 신청서 문자발송 010-9260-1063 | 온라인 <http://sarang.handong.edu/7000> | 우편 및 팩스발송

입금계좌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학) 한동대학교

후원문의 (학) 한동대학교 후원팀 |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T.054-260-1063 F.054-260-1069 [sarang@handong.edu](mailto:sarang@handong.edu)

## 한동대학교는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닙니다.



### 믿음의 학생들이 모입니다.

크리스천 비율이 약 89% 로 하루의 처음과 끝이 예배이며, 기도 로 강의를 시작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전공, 학년 구분없이 30-40명이 교수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 캠퍼스와 생활관에서 전 인교육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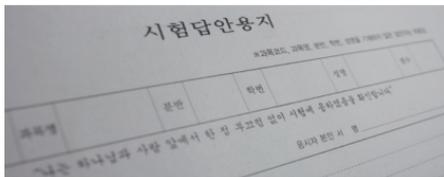
### 선교사, 목회자 자녀들의 훈련소입니다.

재학생의 약20% 가 선교사, 목회자 자녀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익 힌 언어와 다양한 문화 경험, 친화력 등의 강점과 함께 한동에서 훈련받으며 글로벌리더, 부모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사역자로 세 워지고 있습니다.



### 학생들이 행복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따라 온 학생들은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본인의 적 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합니다. 대학의 학생만족도를 나타내는 한 동대의 중도탈락률은 1.3%로 전국 사립대중 가장 낮아 학생들 의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출처: 대학알리미 '2016년 대학 중도탈락 학생 현황')



### 정직을 배웁니다.

무감독양심시험으로 대표되는 한동명예제도와 끼니를 거르는 학 생을 위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식사하는 한동만나는 한동의 경적 한 문화를 보여줍니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지성·인성·영성 교육을 통하여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한동대학교가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필요가 절실합니다.

## Why not change the world?



# 한동대학교 7000 갈대상자 후원신청서

## 후원자정보

성명(교회명/ 기업명/ 개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연락처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구분	<input type="checkbox"/> 교회 <input type="checkbox"/> 기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약정정보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원
후원기간	<input type="checkbox"/> 정기 매년 ____ 월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3일 <input type="checkbox"/> 정기 매월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3일 <input type="checkbox"/> 일시
후원목적	<input type="checkbox"/> 갈대상자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지정기부금)
기부금영수증	<input type="checkbox"/> 발행 [사업자(주민)등록번호: _____] <input type="checkbox"/> 미발행

## 납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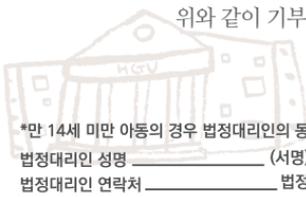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명 (서명)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학)한동대학교

※ 한동대학교 7000 갈대상자는 1년 정기후원 캠페인입니다. 자동이체는 이체일에 출금되며, 무통장 후원은 1년 단위로 후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갈대상자는 기독교 양성을 목표로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 법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법인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학)한동대학교 지정기부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여부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후원금액, 후원목적, 무통장입금, 자동이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정보 민감정보 종교, 출석교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부금영수증 발행 목적으로 수집, 이용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제3자 정보제공	자동이체출금이체서비스(금융결제원), 기부금 납부 및 기부자예우, 모금통계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근거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 소득세법제160조의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예우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부(약정)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신청인 (서명) 귀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성명 \_\_\_\_\_ (서명) (학)한동대학교 이사장  
 법정대리인 연락처 \_\_\_\_\_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_\_\_\_\_

(학)한동대학교 후원팀 | 한동대 대외협력팀 전화 054.260.1063 | 팩스 054.260.1069 |

E-mail sarang@handong.edu | http://sarang.handong.edu

\*위 신청서를 핸드폰 촬영 후 문자로 보내주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신번호 010-9260-1063